

# 남의 소전을 자기가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분별은 버려야

29면에서 계속

는 이 몸치 덩어리가 얽히고설킨 채, 아주 벽을 두껍게 써서 그걸 벗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참나를 깨치지 못하고는 이 도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별에서 헤어 나지 못하신다면, 영원히 위로는 묵은 빛도 갖지 못하고 아래로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분이 된다면 세세생생에 항상 이런 고에서 헤어 나질 못할 겁니다. 승진이 됐다 좌진이 되고, 인간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도 바라지 말고, 가난도 바라지 말고, 잘난 것도 바라지 말고, 못난 것도 바라지 말고 오로지 '바로 내 주인공만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만이 감사하구나, 나도 형성시켰으니까.' 이것 두 가지만 알면 습도 다 뺄 수 있고, 일체를 다 버린다면 일체를 얻을 수가 있고, 일체를 얻었다 하면 일체 항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둘이 아니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써 영험을 보기도 하는데

문) 정성으로 기도하여 영험을 보신 분들도 많은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답) 그것은 소소한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창살 없는 창살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움쭉 못하는 거죠. 이 '주여! 아버지시여! 이거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거는 하나의 자기의 부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전화통부터 놓아야 남의 집에도 전화하고 남의 집에서 내 집으로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집에 전화는 안 해 놓고 남의 집에 전화 해 놓은 테다가 비는 거죠. 아이고, 관세음보살! 주여! 무슨 어찌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개선해야 할 것은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다 개선해야 돼요.

이게 전제 삼라만상 우주 천지가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과 천지의 근본, 이 월세계의 근본 또 태양의 근본, 전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은하계도 많잖아요. 그 은하계의 별성들도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물질로서의 연구를 자꾸 하잖아요. 요만한 게 사람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 입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나 망원경이나 탐지기나, 거기 그 시스템을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잠수함을 깨

뜨리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던 말이예요. 각 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그러한 연구보다도 이 사람에 가설된 한생각이, 수소폭탄이나 핵폭탄도 전부 죽이는 것만, 모두 태워 죽이는 것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좌우할 수 있던 얘깁니다. 그렇게 위대합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주인, 주인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지구 안에서 살지만 지구의 주인이요, 지구는 집과 같은 겁니다. 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이 모여 있는데 한생각에 의해서 악업 선업이 무너지는 거죠. 팔자 운명도 없어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공부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그대에 자기를 깨달아서 너무나 알아모든 우주 전체를 감응할 수 있고 직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랬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가 고만 그 미개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늘름하게

'아이고, 주여! 뭐가 우리를 나게 했느냐. 뭐가 먼저 만들고 태초가 어딤느냐?' 해야 되겠습니까. 난 내가 난 게 태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부터 알아야 모두 알 테니까. 내가 갔으니까 세상을 알았고 세상이 벌어진 걸 알지 않았습니까, 각자. 또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죽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을이 돼서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무뿌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 나와서 그 봄이 오면은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인간도 그렇게 돌아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 도리를 모르면 50%가 미완성이라는 얘깁니다.

나이에 걸맞는 덕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문)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분별심만 더 커져서 싫어지는 사람도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가 지났는데 제 나이에 걸맞는 덕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별에서 헤어 나지 못하신다면

영원히 위로는 묵은 빛도 갖지 못하고 아래로도 주지 못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항상 고에서 헤어 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천문학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안통, 마음의 눈으로 전체 탐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마음으로서 이게 전체 무전통신 할 수 있다. 일체 만물과도 더불어 같이 상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계가 팽창되거나 또는 어떠한 거, 예를 들어서 태양이 220V고 우리 지구가 120V라면 지구를 집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이 마음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수화합이거든요. 이 몸뚱이, 물질이 모두 다 말합니다. 수소폭탄도 지수화합 아니면 못 만들어요. 이 집도 지수화합 아니면 못 만들고, 이거 하나 흙과 물을 한데 배합해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바람에. 그대 가지고 불에 구웠죠? 그랬으니 어떻게 지수화합 없이 이게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컵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내 주처에서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게 바깥으로

타드립니다.

답) 우리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자꾸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요. 사람 하나 몸뚱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야지요. 조금만 뭐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예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이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도 공해서 놓고 터벅터벅 지금 가는 거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산상봉 꼭대기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비로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겁니다. 천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거 한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체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천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인해 일어났고, 여기서 인해 여기서 일어났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놀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떼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보니까,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보니까,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깁니다. 또 동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고,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고,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겁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답이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그 마음 가짐이 어는 누구든지 깔보지 말고, 하다못해 사람 아닌 병어리,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 목석이 아니든,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 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

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고 또 내가, 즉 말하자면 나그네 생활로 살다가 나그네로 다시 빈 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빈 몸으로 와서 빈 마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착, 욕심, 아집, 아상 또는 너, 나 둘로 보지 않고 살면은 이다음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항상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의 그 우주천하도, 사생의 모래알같이 수효가 헤아릴 수가 없는, 무량수의 공덕을 그 그릇에 다 담아야 손색이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집어다가 말입니다. 담은 사이도 없고, 이 세상의 모두를,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 집에 담아도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넓지도 않아요. 다 내놔도 또 그것이 줄지도 않고 항상 풍족하죠.

그래서 마음으로서의 그 자비와 그 성스러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나라는 조건을 세워서 항상 여러분 가정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뭐. 내가 짊어지고 나온 내 탓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저렇게 식구가 마음이 풍족하지 못한 것도 바로 우리가 차원이 똑같으니까. 금은 금방에 가고 남자는 남 대대로 모이듯이, 우리 식구가 똑같이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나. 그러니 내가 그저 '주인공, 당신밖에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당신밖에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어요. 당신밖에 우리 우환을 없게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병고를 없앨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낮게 해 주시오.' 가 아니라 '당신밖에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낮게 할 수 없어요.' 이겁니다.

주인공 찾는 것도 아주 둘로 찾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인공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시죠?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다리 건너 나가니까. 벌써 그것도 미신 짓이예요. 주인공이라고 이름만 해 냈지, '주인공, 낮게 해주시오.' 이러면 벌써 아니 기복하고 뭇이 다 됩니까?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고, 또 재차 말합니다. '주인공밖에 나의 병고를 낮게 할 수 없고,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내 주위공부에는 해결할 수 없고 잘 이끌어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런 뭐는 것이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참 불가사의 한 법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끔 돼 있죠.

아빠와 아들 사이가 안 좋아요

문)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저의 바깥양반이 주사가 좀 심해서 아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떡을 놓고 밥을 놓고 비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타의에서 타력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자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와서, 내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세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사할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사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장천의 삼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난 떠날을 위한 기도
4. 밤이 깨우를 위한 기도
5. 영산율
6. 행복의 기도를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심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 때는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버리면
19. 우리 마음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문을 잠그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전연 1
22. 광명전연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경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찬불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터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무료배송 66%



엡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 전시상품 절대 아님  
-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철성상회검색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